

生居鎮川
死去龍仁



Korean Traditional Premium

용인공원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소로 양귀 그윽한 바람이
이리로 와보니

이 늦게 귀촌
소로 소를 울로 지나고
길은 강을 건너네
내 호수이랑 푸르구나
길은 어지러라

조용은 세상
조용은 사람을 만났고
자연은 길은 벗
살아왔네

Korean Traditional Premium

흐르는 듯 마는 듯 오는 사람도 마중하는 사람도 묵묵히 다가오지만 예(禮)와 격(格)을 다하고 그 마음에는 음양오행의 깊은 성찰이 있더라.
단아하고 수려한 아름다움으로 고요히 빛을 내네. 내 인생은 참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기만 합니다.

한국형 프리미엄 가족묘원-용인공원은 온고지신의 지혜로 대한민국 장묘문화의 올곧은 뿌리를 내리고자 합니다.
용인공원의 새로운 얼굴, 울림 있는 감동서비스로 더 가깝게 다가가겠습니다. 전통과 새로움이 만나고 세대와 세대가
교차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장묘문화의 계승을 위해 더욱 힘찬 각오, 믿음직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용인공원. 자연과
시간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감동과 변치 않는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한 곳 한 곳 정성스럽게
내 부모를 모시는 마음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CONTENTS

용인공원 소개	06
정명지	14
하늘담재	15
가족봉안묘	16
명당매장묘	17
관리서비스	18
오시는 길	19



그리움의 깊이가 다릅니다, 프리미엄 가족묘원-용인공원

소중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예와 격으로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용인공원의 온고지신입니다

한국의 전통장례에서 '사(死)'라 쓰지 않고 '상(喪)'이라 쓰는 것은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라는 애통함을 대신하고 싶은 옛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온고지신의 지혜를 따르는 용인공원은 모시는 분의 마지막 모습을 격조 있게 보내시는 분의 마음까지 더욱 헤아리고자 합니다. 가시는 발걸음마다 깊은 위로로 남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프리미엄 가족묘원-용인공원

시대를 계승하는 장묘문화, 올바른 뿌리를 내려야 하기에 용인공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명당 중의 명당 용인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국 최대 150만㎡의 면적이 전부는 아닙니다. 40년 전통의 뿌리깊은 역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통의 장묘문화를 이끌어야 할 용인공원이기에 그 어깨가 무겁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유훈을 받들어 한국의 정서를 어루만지고 이 땅에 바르고 옳은 장묘문화를 내리기 위해 언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뿌리깊은 장묘의 명가가 되겠습니다.



|| 도산 안창호 ||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유훈을 받들어 성장해온 용인공원은 사회공익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내 독보적인 장묘공원 재단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치입 경영, 안정적 재단운영 등으로 사업성은 물론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명당의 차원이 다릅니다, 프리미엄 가족묘원-용인공원

예부터 잘 알려진 금계포란형의 명당자리, 많은 분들이 용인공원을 찾는 이유입니다

예로부터 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에 묻히라는 말이 있듯이 용인은 명당 중의 명당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용인 중에서도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의 용출봉에 자리잡은 용인공원은 150만㎡ 전국 최대! 크기로 수려한 조망과 넉넉한 녹지공간, 시시각각 변하는 사계절의 아름다움까지 함께하는 천혜의 명당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전통장묘문화가 자리잡은 곳, 용인공원입니다.



|| 생거진천 사거용인 ||

용인은 예부터 영혼의 천년안식과 가문의 번영을 위한 최고의 명당 자리입니다

|| 금계포란형 용출봉 ||

시대를 이끄는 재벌가, 명문가들은 어김없이 금계포란형 용출봉에 모십니다

|| 국내최대 녹지비율 ||

전국공원요원 중 최대규모의 녹지비율과 공원전체를 감싸안은 휴양림은 쾌적한 공원환경을 선사합니다

|| 공원내 편리한 이동로 확보 ||

대규모 공원이 더욱 편리하도록 내방객의 동선을 고려한 이동로는 자동차나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연의 숨결이 다릅니다, 프리미엄 가족묘원-용인공원

전국 최대규모 150만㎡, 바람과 구름이 머무는 용인공원의 자연은 넉넉합니다

인공적인 꾸밈 없이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정한 바에 의해 생성되고 성장하고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늘의 섭리. 용인공원은 온고지신의 지혜를 따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한 조각도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더 넉넉하고 포근할 수 있도록 용인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 용인공원의 새로운 모습 ||

인공적인 꾸밈도, 문화적 충돌도 없는 한국의 정원 같은 묘원
편안하게 결심하는 다른 이유입니다



|| 작가 박준서 ||

한국 전통의 장묘문화를 지키고 내일로 계승하는 용인공원의 새로운 의지를 담은 Korean Traditional Premium을 바탕으로 용인공원의 나무 하나, 돌길 하나까지도 세심한 감각으로 그려내고 있는 박준서 작가는 세상과 소통하며 내일을 그려내는 이 시대 존경받는 작가입니다.



正明地

정남향

그 분의 기품에 조금이라도 소홀할까, 그 분의 명성에 혹시라도 누가될까
정남향의 최고 명당에서 늘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모십니다

한국적 전통을 고품격 프리미엄으로 재해석한 단아하고 격조높은 석물디자인, 기리는 마음 행여 놓칠새라 든든히 지켜주는 정갈한 편백나무 울타리까지..
모시는 분, 오시는 분 모두에게 뜻깊을 수 있도록 예와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 작품 天圓(천원) ||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의 이미지를 지니되
앞을 들어올려 땅의 기운이 하늘로 향해
하늘의 기운과 만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또한 돌레석과 상석을 일체화해 간결하며
그 자체로서 품격이 느껴집니다.



|| 작품 地方(지방) ||

사각형의 모습으로 땅의 넓고 등직한 기운을
표현하였고, 공중에 살짝 떠 있는 상석의
형상, 묘태석의 색상변화 등은 단조로움을
탈피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등직한 무게감을
줍니다.

|| 작가 박준서 || 하늘의 넓은 기운과 땅의 등직한 기운을 정갈하고 격조높은 디자인으로 각각의 작품에 스며들도록 하였으며 그 자체로 고품격 프리미엄의 기준이 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하늘담재

충남공공기관

산과 하늘이 만나는 그 곳에서
깊은 영면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 봉안담이 새로운 장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로 남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성껏 모십니다.



|| 예술성이 뛰어난 담 디자인 ||

라임스톤(lime stone) 등 천연대리석을 사용하여 미려한 외관과 높은 품격을 선사합니다

|| 품격까지 고를 수 있는 대리석 ||

세 가지의 다양하고 품격있는 내벽대리석으로 더욱 차별화 된 정성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 자연이 느껴지는 아늑한 조경 ||

소나무, 모감주, 산수유 등의 나무와 색이 고운 화초류를 식재해 밝고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체계화된 관리 서비스 ||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장묘 전문가들이 용인공원만의 고품격 의전을 제공해 드립니다

|| 넓고 편리한 전용 주차장 ||

편리한 주차공간과 다양한 휴게/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언제나 성묘가 즐겁고 편안합니다

|| 합리적인 가격 ||

하늘 향한 마음에 한 점 부끄럼 없도록 품격과 정성은 높이고 가격은 합리적으로 모십니다

|| 든든한 보안 CCTV ||

1년 365일 24시간 최첨단 CCTV가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든든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 노약자를 배려한 휠체어길 ||

주차장부터 안치단까지 노약자 및 장애인 가족들도 전용 휠체어길로 편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 작가 박준서 || 하늘담재의 공간은 '열림과 닫힘'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생과 사의 연속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으며, 고인에 대한 그리움까지 감싸안은 작가의 의도가 살아 있습니다

가족봉안묘

함께하고픈 그리움 속에
마음과 마음이 닿아 교감합니다

2위를 모시는 부부단부터 자손만대 가문을 모시는 24위까지
폭넓은 선택의 폭과 실용적인 가치는 대대손손 만복을 기원하는 용인공원의 마음입니다.



|| 백년해로 부부단 ||

부부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설계된 가장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부부단으로서 고전적인 전통미와 세련된 현대미를 조화시켰습니다.



|| 천년사랑 부부단 ||

동대리석과 오석을 사용하여 견고함을 자랑하며 모던하면서도 품격 높은 디자인으로 천년사랑의 이미지를 실현하였습니다.



|| 효성(孝誠) 4위 ||

아버지와 아들, 2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크기의 가족 봉안묘로서 결로, 결빙을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인 견고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 만복(萬福) 8위 ||

조상묘를 이전하거나 3대까지 함께 하여 가문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가족봉안묘로서 2중구조의 통돌시공으로 뒤를림과 침하를 막고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 은덕(恩德) 16위 ||

선산 조상묘를 이전하거나 자손대대 함께 하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문중 가족묘로서 현대적인 감각과 고풍스런 전통미와 더불어 안전성 또한 조화를 이룹니다.



|| 가문(家門) 24위 ||

자손만대 가문의 영예와 영광을 기리는 문중 가족용 대형 봉안묘로서 넉넉한 묘역공간과 천년의 세월을 건딜 수 있는 통돌시공, 2중설계 등으로 견고함이 우수합니다.



명당매장묘

자연의 넉넉한 포근함으로
예를 다해 최고로 모셔드립니다

일년 내내 별이 잘 드는 양지바른 터, 자연이 탁트인 전망의 개방감과
고급 석물의 견고함과 양질의 마사토, 영원한 안식을 위한 최고의 조건으로 가문의 기품까지 생각합니다.



|| 명당 매장묘 ||

매장이 가능한 수도권 유일의 전국 최대
규모 자연묘원 용인공원은 예부터 지세가
뛰어나고 아늑한 역사적인 명당입니다



관리의 정성이 다릅니다, 프리미엄 가족묘원-용인공원

장인의 손길같은 40년 장묘관리 노하우로 가족처럼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용인공원에서만 40년 넘게 묘역관리를 담당해온 전문인력과 50여 명의 상주인원이 묘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벌목, 벌초, 제초 등은 물론 단지 전체의 토목, 조경, 배수관리, 토질관리 등
가족처럼 세심하게 관리하여 조상님을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 용인공원에 모시는 방법 ||



|| 1:1 회원관리 시스템 ||

공원 내 공지사항과 관리사항을 전달 직원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 365일 책임관리 ||

연중 상시 공원 전역을 순시하며 묘역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구역별 관리 전담제 ||

구역별 관리책임자를 배정하여 해당 묘역의 조경과 봉분의 상태를 세심히 관리해 드립니다

|| 계절별 관리 프로그램 ||

자연의 순환에 맞는 계절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날씨와 기후에 대응하여 사전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 편안한 성묘 ||

관리비만 꾸준히 납부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묘 오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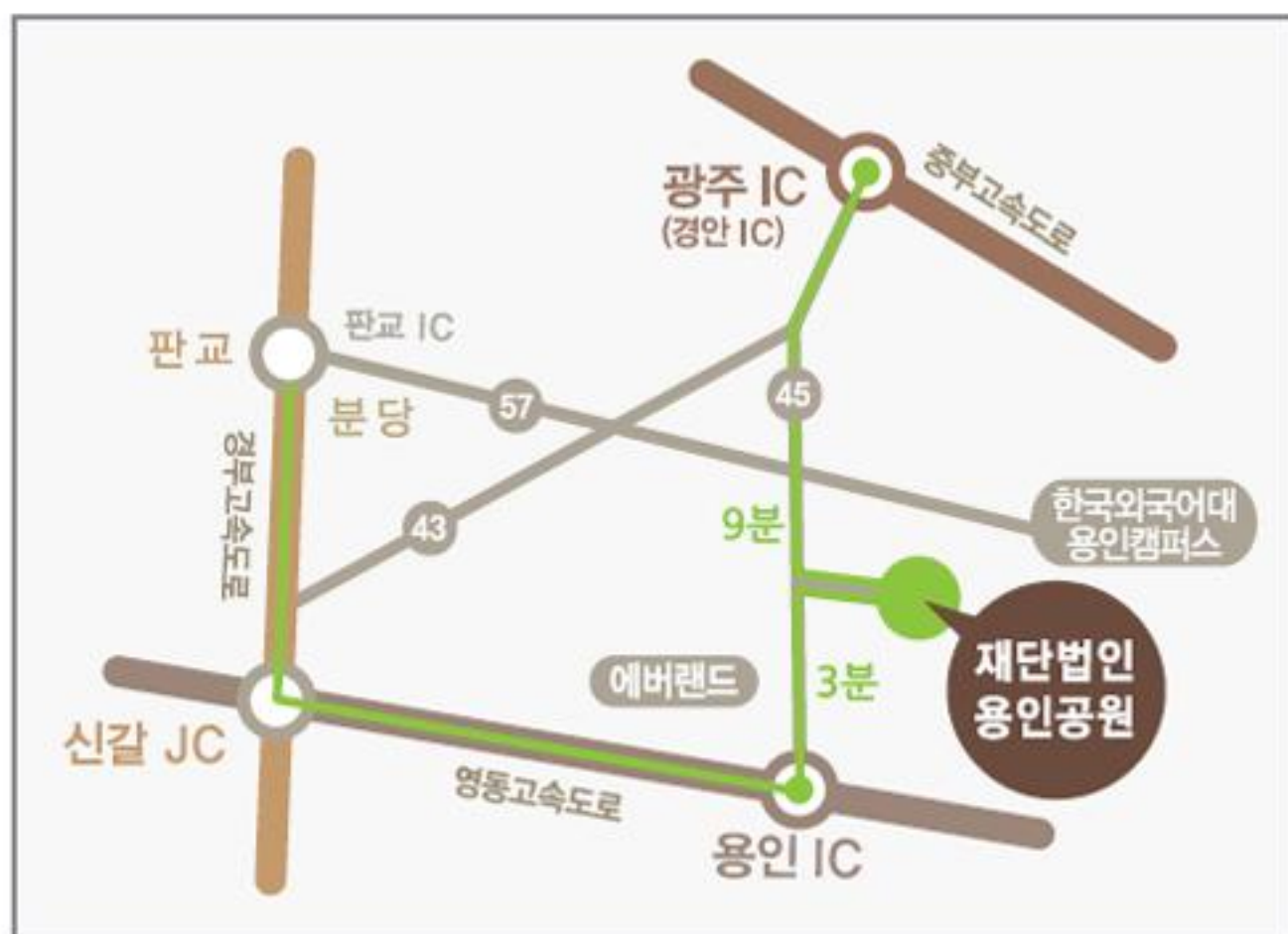
- 무차입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하는 용원공원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 용인공원이기에 관리비는 최소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회원님이 내주시 소중한 관리비는 조상님을 더 안락하게 모시는 데 쓰여집니다
- 주소 변경 시 연락주시면 공원소식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 뵙는 횟수가 다릅니다, 프리미엄 가족묘원-용인공원

그리울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용인공원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완벽한 교통 네트워크로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하는 어느 곳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빠르게 통할 수 있는 핵심 이동동선을 자랑하기에
언제라도 부담없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용인공원입니다.



|| 사통팔달 멀티도로망 ||

경부·영동·중부고속도로, 수서-분당/내곡-분당 고속화도로 57·43·45번 국도의 접근성이 뛰어나 어디서나 편리합니다

|| 주변의 다양한 가족휴양지 ||

에버랜드, 아시아나 CC,레이크사이드 CC, 용인지연휴양림, 자연생태마을 등이 안접해 있어 성묘와 동시에 즐거운 레저,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

영동고속도로 용인 IC → 45번국도(광주방향) → 용인공원(약 6km)

중부고속도로 광주 IC(경안 IC) → 45번국도(용인방향) → 용인공원(약 18km)

국도 이용 >>>

서울 → 분당 → 57번지방도로 → 43번국도 → 외국어대앞 사거리 → 45번국도(용인방향) → 용인공원(약 5km)

버스 이용 >>>

사당역 출발 1500-2번 → 용인공원 정거장 하차

강변역 출발 1113번 → 용인공원 정거장 하차



열려있는 것인지, 닫히려는 것일지 무릇 생각에 따라 다름으로 다가옵니다
슬픔이 지나가는 이 순간을 끝으로 보지 않기 위해 용인공원은 이 땅위에
뿌리깊은 장묘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하늘과 마주합니다